

| 2024년 표어 |

주여, *God Care. We Care!*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소서!

무대 동산



가시나무새



需炫(수현) 허정자

억지를 쓰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가시를 세워두고
들어와 앉을 자리 없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무성한 가시나무 숲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쉼 자리는
암울한 가지만 흔들거렸을 뿐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 불렀던가
가시나무 새
그대 문 밖에 서 있는 줄 모르고

(2012년 2월 주일설교를 들으면서)

시 이야기

수현 허정자 시인은 대구제일교회 권사님입니다. 허 시인은 일찍이 시가 좋았고 예수님이 좋았다. 그래서 그의 '가시나무새' 시에서도 '예수님이 문밖에 서 있으면 어쩌나' 염려한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게 된 것이 자기 속에 자라난 가시가 아닌가 싶어 울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새가 된다. '예수님이 지나쳐버리면 어쩌나' 속고하는 영혼의 가난함이 노래되어 울린다. (이주하 편집위원)

시인 需炫(수현) 허정자

2004년 한맥문학등단

2015년 허난설헌문학 문화상

2016년 송강문학 예술상

2022년 9월 시서화 개인전 경산역 갤러리 맞이방에서 열었다

시집 "고요속의 행복"

발행인 박창운
지도목사 이필형
부장 강영우
부부장 박문호
총무 이상원
회계 김미진
서기 박현아

편집위원
취재기자
스튜디오
편집
발행

곽지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왕혜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우제오, 박효운
안지현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 253-2615 ~ 7
팩스 (053) 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행일 2024. 06. 30.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fch_pub@naver.com

통권 제 106호
The Well-Watered Garden

물댄동산

제106호 표지 일러스트
안주현 집사



권두언	02	이필행 목사
순 소개	04	서유정 집사
새가족 소개	06	홍보출판부
새가족 글	08	김정애 성도
제 4남선교회	10	엄기정 장로
여전도회	11	박정순 권사
안수집사회	15	지문규 집사
초등3부 사역	17	박종성 목사
수화통역	19	도윤희 성도
청년3부	21	김혜진 집사
신입직원 소개	25	이동정 성도
해외선교사 소식	27	김정근 선교사
사역박람회 스케치	29	홍보출판부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33	홍보출판부
고것이 알고싶다	44	홍보출판부
5분독서	46	홍보출판부
미소사진	49	청년부
교계 신문 함께읽기	50	홍보출판부
성도의 글	52	서인수 장로
	54	우정복 원로장로
	57	권중웅 명예집사
	60	변정자 권사
	63	최지은 성도
의료선교부	64	의료선교부
찬양소개	66	최성민 전도사
열린소리	67	홍보출판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
그때순 '하나님 마음 = 순장 마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 4남선교회 야외예배 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 - 제10여전도회 소개
안수집사회 야외예배를 다녀오며
초등3부 명랑운동을 기억하며
수어통역봉사
신앙서적 독서모임을 소개합니다
저는 '주의 궁정'에 사는 이동정입니다~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선교지입니다
의료선교부, 홍보출판부 _ 240512 대구제일교회
교역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세 교회의 뒷골목 풍경
한국기독교공보[사설] / 한국장로신문 [논단]
나의 어머니 최성해 권사님
찬송가 가사의 발음하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위상송배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마틴 루터 신앙의 중심에 서다
퇴행성 관절염
하나님의 부르심
열린소리함 쪽지



이 필 행 목사
홍보출판부 담당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

예전에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 잡지 편집 취재기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할 책을 준비하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준비할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내용으로 항상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했기에 매번 부담감으로 매월 잡지를 출간했었습니다.

물댄동산도 이제 106호가 출간됩니다. 이번에도 물댄동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부담과 고민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해 수고했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물댄동산 한 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소중한 안내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댄동산 한 권안에 담긴 의미와 땀의 흔적들을 알고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도 힘을 얻고, 대구제일교회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교회를 사



랑하고, 믿음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댄동산 한 권을 읽고 이 안에 담긴 은혜와 정보를 누리려 나갈 때 하나님이 왜 물댄동산을 만들게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바울의 편지 한 통이 각 교회에 위로와 힘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물댄동산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려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내 일상의 삶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알게 됩니다. 항상 같은 것 같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의미와 목적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전처럼 그것들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물댄동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순간 물댄동산이 그저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책이 아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6호 물댄동산의 출간을 축하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고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물댄동산

우리순 이야기 **그때순** 하나님 마음 = 순장 마음



서유정 집사(순장)

순모임 권유를 받고 첫 모임 때 겁도 없이 “이 순모임은 언제까지 하나요”라고 물었다. 순장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퍼영생~”.

“아~~ 잘못 왔다~ 우야꼬~”

2015년 1월 14일 나의 첫 순모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순장님과 순원들의 배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면서 순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했다. 순장 교육을 받으라는 말씀에 교육도 착실히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임의 순원들은 하나

씩 분순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분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 분순을 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순장님의 분순 권유에도 불구하고 뻥질거리며 순장님의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찾아왔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중년의 우울증도 겹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혼자서 굴속에 들어가 땅만 파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집사님의 전화 한 통으로 굴에서 나오게 하셨다. 마치 사춘기 아이의 반항을 묵묵히 기다려 주신 부모님의 인내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셨다.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흘렀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다시 순모임을 하게 되었다. 출근 시간이 변경되어 오전에 모임을 할 수 없어 오후에 하는 순모임을 참석하게 되었다. 여전히 순장님 뒤에 숨어 순원으로만 남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 순장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는 순장으로 세워주셨다.

2024년 1월 '그때순'의 순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다. 순원으로 순모임을 참석할 때와 순장으로 써 순모임을 참석하는 것은 마음가짐 자체부터 달랐다. 순을 대하는 애정도 달랐다. 그리고 다른 순장님들이 순원을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동안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랄까~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리 귀한지~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라도 얼굴 못 보면 마음이 쓰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이 모든 순장님들의 마음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때순'은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들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가 더 잘 맞다. 때때로 새신자분들의 순수함에 배울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첫사랑이 생각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순에서 새신자 한 분은 본인이 느낀 순모임을 이렇게 말해주셨다. **나에게 순모임이란~ '주일마다 만나는 즐거움, 행복, 따스한 마음들,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는**

배움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또한 나에겐 은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족함 많은 나에겐 늘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도 고맙고 감사드리며 소중한 만남 우리 순모임이 영원하길 기도드려요~' 이분은 올해 하반기에 세례를 받으실 예정이시다.

순모임은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니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신앙의 든든한 동반자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순모임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순모임 참석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순모임이다.**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순모임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듯이 다른 분들도 순모임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한다. 참고로 '그때순'은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같이 점심 먹고 본당 지하 2층에서 순모임을 하고 있다.

살롬~~~ | 불행동상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혜란 _ 1교구 6구역



임보선 _ 1교구 6구역



이훈호 _ 2교구 23구역



김영균, 송진실 _ 3교구 1구역



권종철 _ 3교구 16구역



김효현 _ 3교구 16구역



안채린 _ 4교구 37구역



전한나 _ 2교구 9구역



이은지 _ 2교구 35구역



태정호 _ 2교구 38구역



권중록 _ 4교구 9구역



이은아 _ 4교구 10구역



하설아 _ 4교구 10구역



김세준 _ 1교구 8구역



정진한 _ 1교구 24구역



이상진, 권순옥 _ 2교구 16구역



양성민 _ 3교구 19구역



이웅락, 이현정 _ 1교구 24구역

New family welcome



윤인섭 _ 2교구 39구역



최재근, 박은아 _ 1교구 16구역



김영진 _ 4교구 6구역



우희돈 _ 2교구 15구역



임종혁, 김송현 _ 4교구 33구역



장영태 _ 2교구 34구역



남해리 _ 3교구 14구역



손태웅 _ 2교구 15구역



구을문 _ 3교구 5구역



이현희 _ 4교구 15구역



나현수, 김선희 _ 2교구 19구역



이상록, 이혜림 _ 2교구 27구역



정민권 _ 3교구 25구역



진시영 _ 1교구 20구역



정경희 _ 3교구 4구역



정혜주 _ 1교구 24구역



김예지 _ 2교구 15구역



김광은 _ 4교구 33구역

하나님의 사랑



김정애 성도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부터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봄이 엄마, 김정애라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긴 시간을 보내온 저와 남편에겐 넓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 떠오르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입니다. 6~7살 무렵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초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조금씩 겹돌고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뜸해지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쯤 완전히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학교생활을 지속했지만, 마음은 공허하게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 때 교회를 다니고 있던 같은 과 친구를 통해 대학 안에 그리스도인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교회에 갔던 순간처럼 제 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경계심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과 마음에 지쳐있던 저의 스무 살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찾아왔고, 결국 저는 오랜 갈등과 두려움을 끝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통해 저를 단단하게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긴 멈춤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개인적인 상황과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며 삶의 열정과 생기,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슴 뛰는 소망. 모든 것들이 무미건조한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임신과 출산이 더해지며 저는 점점 눈앞의 아기를 돌보는 일에만 함몰되어 갔습니다. 때때로 경고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렸지



만 한 번 멈춰진 삶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오르지 못했고 무엇보다 경산까지 교회를 다니는 일을 점점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두고 함께 고민하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든 교회를 떠난다는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이대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에 용기 내어 교회를 옮기자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도 20대 청년 시절부터 말씀을 찾아 들곤 했던 박창운 목사님이 계시는 제일교회에 영아부가 있어 봄이를 먼저 등록시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아이가 영아부에서 적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칠 수 없단 사실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멈춰 있던 삶을 깨워 하나님과의 풍성한 이야기를 소망하고자 결단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도 함께 새가족 등록을 하고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주일 예배만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용기

내어 교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가족교육과 퍼스트스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 저희 가족은 낯설고 어색한 교회에 점차 적응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손을 만나 서로의 삶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누립니다. 저의 굳어있던 마음과 생각도 부드럽게 녹아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멈춰진 저의 삶이 다시 깨어나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흘러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새가족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좋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박창운 목사님의 **말씀, 섬기는 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 순모임으로 누리는 기쁨.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향한 깊고 넓은 품을 가진,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불건동상

제 4남선교회 야외예배 보고

주님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향하여...



염기정 은퇴장로
제 4남선교회서기

제 4남선교회는 베이비붐 세대인 55년-59년생 122명의 남자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자 모인 선교회이다. 매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월례회로 모이고 있으며, 매월 평균 25여 명의 회원이 모여 간단한 예배와 회의를 한 후 오찬으로 친교를 나눈다.

지난 4월 13일(토)에는 25명의 회원 부부들이 부산 기장 해변항에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총무 권영수 집사 부부가 준비한 푸짐한 간식 보파리와 신임 윤길규 집사 부부가 준비한 특별한 간식들로 우리들의 담소는 더욱 즐겁고 유익하였으며, 버스 안에서의 회원 소개와 담소로 2시간여의 이동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기장 바닷가 파도횃집 2층에서 만선 한 멸치잡이 배를 바라보며 멸치요리를 먹는 회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그것은 바로 파라다이스였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아난티에서의 커피잔과 산책은 모든 회원들이 알바 알토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한국 사람들은 365일 중 353일 커피를 마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커피는 부부가 함께 온 회원들에게 啐啄同時(줄탁동시: 서로가 협조하는 일)의 효과가 적절히 유효했으리라 생각되었다. 현대 사회는 특별한 공간을 즐기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아난티의 카페에서는 즐길 공간과 최상의 커피가 제공되어 회원 모두를 기쁘게 했다. 눈과 입이 즐거웠고, 대구에 도착, 준비된 저녁 만찬을 마치고 HAPPY HOUSE로 향했다. **함께한 회원들과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기로 다짐하면서...** | 율령동상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

- 제10여전도회 소개 -

여전도회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순 권사
본회 회장

살롬! 10 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126년의 긴 역사 속에 여전도회는 일제강점기 625 동란 등 민족의 수난기에도 와해되지 않고 복음 전파와 교육, 문화, 선교에 힘쓰며 민족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대구제일교회 여전도회가 1911년 창립해 오랜 역사 가운데 선배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잘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회원들을 증가하고 은혜로운 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구제일교회 여전도회협의회 회장 박정순

경북노회여전도회가 130여년의 역사를 이어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이어 우리 교회가 최우수 교회상을 수상하며 타 교회의 모범이 되고 덕을 끼치게 됨은 앞서 일하시는 임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헌신 덕분이기에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한 점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재활용이 없는 삶이기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북여전도회 90~91회기 회장 정송희



1지회 회장 박순자 권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제야 깨닫게 되니 늙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듯 세월의 소중함이 봉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철들자 명령이라는 옛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감사가 더욱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늘 찬송하며 즐겁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2지회 회장 오귀련 장로

제2여전도회는 1948년~1945년생으로 5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격월로 첫째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부 경건회와 2부 회무처리 후 회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학원선교 및 기타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3지회 회장 이경화 권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제3여전도회는 아름답게 황혼이 깃든 72 ~ 75세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청평 영락교회, 포항 성법교회, 육군 소망교회 및 해외 선교지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월례회를 통해 전체 만남과 또 부서별로 행복한 식사와 티타임을 가짐으로 많은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회원이 늘어나는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제3여전도회 만남을 통해 회원들의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며 행복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4지회 회장 표선주 장로

4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4전도회 회원들이 야외에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자연의 걸작품들 누리고 즐기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못 다 나눈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표정들이 밝고 예쁘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지회 회장 박정순 권사

82년 결혼 후 그 이듬해 83년부터 미국에 이민가신 독고정희 집사님의 지속적인 권유로 여전도회에 참석해 근 40년 동안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았을 때에도 전도회 때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아직까지 전도회에 참석치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꼭 참석해서 전도회가 즐겁고 감사한 교회생활의 일부분이었으면 하고 기도해 봅니다.



6지회 회장 김성순 권사

제6여전도회는 제57여전도회와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현)경북연합회 회장, 부회장, 홍보부장을 비롯하여 여전도회 찬양대, 새가족부, 이스트 힐, 수요 전도대, 교회 학교 교사와 부장, 구역장과 교구 회장 등으로 다방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8지회 회장 서유정 집사

대상 : 1968년~1974년생 날짜 : 매달 3째 주일
장소 : 100주년기념관 3층 유치부실
시간 :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식사 후 ~ 1시 20분
목적 : 하나님께서 주신 여전도회의 사명인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도움과 기타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친교에 중점을 두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으니 또래분들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7지회 회장 이성희 집사

샬롬~ 제7여전도회입니다.
웃음이 시간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야외 예배를 통해 서로의 마음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1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교회와 함께 선교와 나눔을 전하는 제7여전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68-65년생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어서 오이소^^



9지회 회장 박보영 집사

샬롬~ 제9여전도회 회장 윤보영 집사입니다. 회원 나이로는 1975년부터 1980년생입니다. 정기월례회 진행은 매월 셋째 주 3부 예배 후 (교육관 6층 초등1부 교사실)에 가집니다. 저희 전도회에서 돕는 기관으로는 이수교회(경산군부대), 여교역자안식관입니다.
혼자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뜻 개인으로 하기 어려운 선교와 봉사를 여전도회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실 집사님들 함께해요~



청년지회 회장 이하나 집사

살롬~ 청년여전도회 회장 이하나 집사입니다.
대구제일교회 청년여전도회는 연 나이 43세 이하 여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 봉사, 선교를 목적으로 월 1회 정기모임(매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 후)을 오붓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래 성도님과 안면도 트고 함께 신앙생활을 다져나가길 원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주세요~

여전도회 역사

- 1898. 02. 20. 여전도회 조직(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 초대 회장: 이신행)
- 1919. 10. 19.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조직(김마리아 회장 주도로 독립자금 모금운동)
- 1928. 09. 07. 제17회 장로회 총회(대구 신정교회)에서 여전도회 총회 승인
- 1928. 09. 09.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부인전도회 창립
- 1931. 09. 11. 중국 산둥성에 김순호 선교사 파송(최초 여선교사)
- 1936. 09. 10. 여전도회주일 제정: 본 교단 제25회 총회 결의(광주 양림교회) - 매년 1월 셋째 주일
- 1957. 09. 본 교단 총회에 장로교 여자대학(서울여자대학) 설립을 건의하여 결의
- 1961. 03. 서울여자대학 개교
- 1990. 09. 07. 여전도회관 봉헌예배(본회 제55회 총회)
- 1998. 09. 03. 여전도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

회원

- | | |
|------------------|------------------|
| 제 1여전도회 80세 이상 | 제 2여전도회 79 ~ 76세 |
| 제 3여전도회 75 ~ 72세 | 제 4여전도회 71 ~ 68세 |
| 제 5여전도회 67 ~ 64세 | 제 6여전도회 63 ~ 60세 |
| 제 7여전도회 59 ~ 56세 | 제 8여전도회 55 ~ 50세 |
| 제 9여전도회 49 ~ 44세 | 청년여전도회 43세 이하 |

제일교회 여전도회 연혁

- 1911. 지해리 외 6명 여전도회 창립
- 1921. 제1회 총회
- 1951. 창립 40주년 기념예배시 전도가를 지어 회원일동 부르다
- 1965~1980. 정분순전도사 여전도회 전담전도사로 부임
- 1981. 3개 여전도회가 5개 전도회로 분리
- 1982. 여전도회 성가대 조직
- 1986. 제일교회여전도회가 일본 히로시마 한인교회 부인회와 자매결연
- 1991. 5개 여전도회에서 10개 전도회로 분리하다 | 불평등상

도담삼봉에서 은혜의 비를 맞으며...

- 안수집사회 야외예배를 다녀오며 -



지문규 집사
안수집사회 회장

봄비가 차분히 내리는 4월 20일 토요일 안수 집사회는 도담삼봉이 있는 단양에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봄에 여름 장마 마냥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덕분에 산불 났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흠족한 비를 주시어 대지를 알맞게 적셔주므로 풍년을 예감하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세장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수집사들의 야외 예배 또한 약간의 비에 나뭇잎 운치도 있고 알록달록한 우산이 함께 했기에 찍은 사진들도 컬러풀하게 너무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안수집사회 야외 예배를 가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물러가니 임원 회의에서 이제는 야외 예배를 당연히 가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단양 쪽을 선택을 하고 답사도 갔다 오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수집사회 총무님이 여러 차례 문자도 드리고 광고를 한 결과 44명이 신청을 하여 교회 버스에 스타렉스까지 동원하게 되었으며 야외 예배 전날 임원들은 함께 모여서 내일 있을 행사를 위해 장보기부터 하였습니다. 마침 일기예보를 들으니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에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이왕 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행사 날 일기예보대로 비는 내렸지만 안수집사 모두들 특히 안수집사님들의 안방마님들 표정은 아이들 소풍 가는 기분인 양 얼굴엔 웃음 가득한 모습들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장규현 목사님의 기도 후 출발을 하였고 목적지에 가는 내내 총무 홍정우 집사님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성경 퀴즈 맞추기 등 특별히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만 불러내어 던지는 알곳은 질문에 모두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회의 야외 예배를 위해 준비한 김상현 집사님의 찬양과 기타 반주는 프로급 이상으로 단양을 가는 내내 심심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총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양애 집사님께서 집에서 밤새 정성껏 손수 만들어 온 탕후루는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모양도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담삼봉에 도착하니 비가 제법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먼저 도담삼봉에 있는 유명한 석문을 가면서 야트막한 산 중턱 팔각정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산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느껴지는 진정한 야외 예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외 예배를 마치고는 석문을 가는 것으로 일정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석문은 도담삼봉에서 한 200m쯤 상류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돌기둥으로써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아직 가지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 일행들은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여러 포즈를 취해가며 비가 오면서도 사진들을 찍고 내려와서도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식당으로 가서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단양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단양강 데크 길을 삼삼오오 걸으면서 또 사진도 찍고 일상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다가 데크 길 끝에 와서 버스를 타고 한 7~8분 정도 가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단양의 명물인 스카이워크 길에 다다랐습니다. 단양의 명물답게 비가 오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둥글게 둥글게 나선형 모양으로 된길을 마치 천국을 올라가듯 올라가 보니 비가 와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신록의 푸른 산들과 강줄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카이워크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옴으로써 단양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종착지인 교회에 와서는 교회 식당에 미리 준비한 간단한 저녁식사까지 하고 나니 야외 예배 모든 일정을 무탈하게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외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이 행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은 많은 안수집사님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안수집사회 야외 예배는 코로나 이후 처음 있는 행사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안수집사님들이 참여하는 귀한 친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수집사님과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출정동상

주님 안에서 함께 뛰고 신나게 놀자 ~

초등3부 명랑운동회

를 기억하며



박종성 목사
초등3부

살롬 ~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글은 4월 14일 <명랑운동회>로 드렸던 초등3부 주일예배를 일기 형식으로 각색하여 제게 주셨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용되어 지기길 소망합니다.

2024년 초등3부는 1~6학년 대상으로 다시 개편되면서 다양한 학년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에 1분기가 끝나는 3월을 마무리하며 초등3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를 계획하였다.

4월 첫째 주일(7일)로 운동회 날짜가 정해지고 주중에도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행사 장소 섭외,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 준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마치고 광고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운동회 당일 시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로 인하여 교통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과감하지만 신속하게 한 주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루게 된 14일 주일 아침에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부서실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탁월한 결정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또 한 번 배워가는 순간이었다.

그러기도 잠시 오전부터 운동회에 필요한 짐들을 싣고 옮겨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줄지어 신명고 강당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속 두근거림과 샘솟는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유는 계획대로 운동회가 진행되었다면, 목사 안수(4월 9일)를 받기 전이라 어느 때와 예배 형식이 다를 바가 없





있을 테지만, 안수를 받고 맞이하는 첫 주일인 만큼 머릿속엔 온통 준비했던 축도문을 외우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등3부 친구들과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젠 정말 나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본 한국 최고의 레크리에이션 강사님이신 이정이 목사님께서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은 오랜 시간 초등부 사역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교회를 넘어 학교와 외부에서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초빙되실 만큼 실력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초등3부 친구들과 과도 금방 하나가 되어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고, 진행되는 프로그램마다 친구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순서들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야외 예배 특성상 여느 때보다 짧게 드러진 예배였지만, 그날 친구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삶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중략 ... 악에게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5절 ~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오래전부터 개인주의라는 나 또는 내가 포함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물들여져 왔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어야 하는 상황도 삶에서 맞이하게 되지만, 매 순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본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점검해 보고, 더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3부 친구들이 명랑운동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기억하며, 성경적 공동체의 의미를 바로 알아,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였는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떠올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린다. | 불멸동상



도윤희 성도
수어통역

1. 인사말 및 수어 통역을 맡게 된 계기

안녕하세요. 제일교회 3부 예배에서 청각장애 인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맡고있는 도윤희 성도 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수어를 배워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청각장애인 이시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웅얼이하며 부모님과 언어로 소통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말보다 수어를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가 제일교회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시작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의 바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간절히 염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2. 수어란?

먼저 지금은 수어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수화였습니다. 수화가 하나의 규칙 체계로 자리 잡게 되면서 수화가 수어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자

연 수화와 문법 수화로 나뉘게 됩니다. 저의 수화는 자연 수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수화는 농수화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 낸 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수화는 언어 문법에 맞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수화입니다. 요즘 TV에서 뉴스나 공식 발표시 옆에서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이 문법 수화에 맞춰 통역을 하시는데요,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손가락으로 글자 모양을 만들어내서 하는 지화를 많이 활용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청각장애인들의 교육이 발전되어 문법 수화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편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저희 부모님 세대인 청각장애인분들은 시대적으로 많이 열악했던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에 문법 수화 보다는 자연 수화에 더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와 해석이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는 문장들도 청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수준은 아마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어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때로 수어로 전달이 안 될 때는 얼굴 표정과 함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3. 하고 싶은 말

청각장애인들의 문법력이나 전달력은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시기에 일반인들의 사고와 청각장애인들의 사고를 직접 겪고 체감하며 다름을 이해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대처도 가능하지만, 청각장애인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이야기 드린다면 이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더욱 깊은 기도와 신앙심을 가지고 매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정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주님 말씀에 감동하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청각장애인분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불평등상



청년 3부 신앙서적 독서모임을 소개합니다



김혜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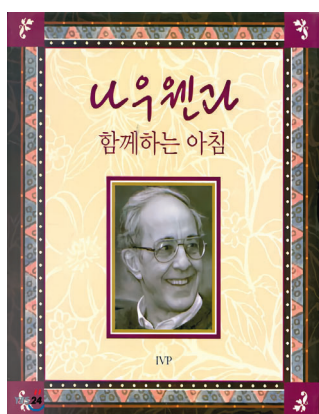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신앙서적 나눔 모임은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적어 단톡에서 나누고, 그 글을 모아 물댄동산에 내기로 했습니다.

모임은 한 달에 한 권 함께 책을 읽고, 대면 모임으로 삶과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3년째 책모임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이 정해진 모임 없이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남녀노소 누구든 함께 신앙서적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좀 더 생겨나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고, 저마다 관점이 다른 그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김혜진 집사



저는 5월, 헨리 나우웬의 [나우웬과 함께하는 아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웬 신부님을 좋아하고 그 분의 글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책은 한편 묵상 글 같기도, 하루의 기도문 같기도 합니다. 바쁜 아침이나 틈날 때 기도하듯, 묵상하며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연륜이 있으신 사제의 고백이 마음을 찡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고백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대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는 것입니다. - 나우웬과 함께하는 아침 중에서」

박문호 집사



《침묵》(일본어: 沈黙)은 엔도 슈사쿠가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기반을 두어 창작한 역사소설입니다. 1966년에 집필을 완료하고 신초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 기리시탄 탄압의 한가운데에 놓인 포르투갈인 사제를 통해, 신과 신앙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제2회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을 수상하였고, 세계 13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그레이엄 그린으로부터 '엔도는 20세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이다'라는 찬사를 받는 등 전후 일본 문학의 대표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기초는 그렇게 잔인한 박해에서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신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를 반문하는 데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시련을 견뎌야 하는지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신앙 선배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앙적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사일런스(2016년)도 있으니 책을 읽고 보시면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여진 집사



존 가트먼, 최성애박사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은 아이를 위한 육아서이지만, 부모인 나와 마주하게 되는 책입니다. 기도하며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인 나의 부족함에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표제가 마음에 와 닿았고, 아이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연습하듯, 부모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여러 유형의 부모, 부모인 나의 초감정 찾기,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방법, 대화의 방법 등을 여러 상황들을 예로 알려주어 나 스스로를 되짚으며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부모의 이해와 방법도 달라야 하며, 아이의 중요한 시기별 감정코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Not a Fan(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Yes’라는 대답을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제자’가 아닌 ‘팬’이라 할 수 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애착을 한 대상에게 보여주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 대상이나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팬’을 ‘예수님’에 대해 사전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도 그의 ‘희생’과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일에는 한 발 벗어나 있으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지식’을 ‘현신’과 친밀함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팬과 제자의 구분을 위해 저자는 5가지의 큰 질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내리고 있다. 흔히들 교회에서 자라오고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에게도 ‘아차!’ 싶을 정도로 제자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자도의 길과는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살펴보게 된다.

팬과 제자의 판단을 하게 한 다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알려준다. ‘아무든지’, ‘누구나’로 시작되는 제자의 길은 그를 따를 때 내 ‘전부’를 걸고 따르라 하신다. 단,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장 지금’을 요구하신다.

복음의 초대장으로 언급된 성경구절을 통해 제자로의 삶은 어떠한지 보시길 바란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행동을 강조한다.”

권세훈 집사

먼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인 이정훈은 청소년기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동국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출가하여 조계종 승려로서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불교계에서 활동했을 당시 미션스쿨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도 하였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 설교방송을 보던 중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후로는 법학과 교수로 이론적, 사회과학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변호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이다. 대학을 떠나서는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교육과 강의를 하다가 2024년 4월에는 서울 용산에 교회를 개척한 승려

에서 목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라 할 수 있겠다.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정훈 목사가 쓴 첫 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고 이 책을 만났을 당시에는 머릿속에 강한 지적 충격이 왔었다. 이 책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구조적인 모든 세력들의 조직과 속내를 논리적, 법리적, 철학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구라는 보수의 성지에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수, 진보, 사회주의, 인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던 거 같고 지금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전쟁과 혼란과 격변의 시대를 몸소 겪으신 어르신들은 이론과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시는 개념들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세대는 경험도 없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영화나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잘못된 사고와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부패한 교회에서 내려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현대의 우리들도 어찌면 미디어에 의해 잘못된 이념과 생각들에 세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중세인들은 라틴어를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현대의 우리들은 책뿐만 아니라 손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도 좋은 강연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현대사회에 정보를 접할 다양한 매체가 있음에도 진실보다는 선의로 포장된 책, 영화,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들은 잘 걸러서 봐야 될 거 같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과 저자는 추천해도 좋을 것 같다. 북영등상

저는 '주의 공정'에 사는 이동정입니다~



이동정 성도

샬롬, 안녕하십니까? 신입 미화직원 이동정입니다. 제 소개와 신앙 여정 기고를 의뢰받고는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상과 제사를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부모님은 서로에 대한 깨어진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정했던 저는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저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버려두시는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칠 때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슬쩍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러던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된 게기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이라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드(시46:5)'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얼 드릴까 고민하다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하자 싶어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식당 봉사까지 감동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해서 작은 걸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막연하게나마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하던 일이 계약만료가 되었고 일자리를 찾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교회'라고 검색하였더니 제일교회에서 직원모집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지원하였고 이렇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일은 처음이라 서툴고 버벅대고 때로는 자격지심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제 마음에 자격지심이 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일이 과연 제게 맞는 일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는 네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하여 주었는데 왜 불평하느냐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열심이시고 삶의 지혜가 많으신 두 언니들과 일하는 것도 감사, 남들은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관광오는데 매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도 감사, 살랑거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맞으며 비질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함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출근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84:10)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평동상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선교지입니다



김정근 선교사

그간 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팔은 힌두교인이 81%나 됩니다.(2011년 조사기준) 카스트(Caste)와 윤회(Rife Recycle)문화가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력갱생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와는 아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밀알미션은 작은 자 섬김 사역(마태 25장 31~46절.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인 가난하고 소외된 자 섬김) 특히, 장애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요한 9장 1~5절)을 통해 네팔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대구제일교회 130주년 기념 심탈리 교회 소식

2023년 4월 1일 본 교회 선교현당팀이 오셔서 현지교인들과 함께 기쁘게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머누 목사님(네팔장신대 졸업)이 담임하고 있으며, 주위 산과 계곡에 있는 시멘트공장의 4천여 명을 선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 힌두 인들과 전도 접촉점으로 교회 내에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 성가대는 한 달 동안 전교인 집을 돌며 성탄 소식을 전했으며 원하는 불신자 가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4월 19일에는 전교인 부흥성회 세미나도 열어 교인과 이웃도 초청하였습니다. 심탈리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써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주일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으며 문화의 중심 역할도 해가고 있습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8월 혹은 가능한 시기에 3박 4일 정도 3~4명의 팀이 오셔서 하시면 주일학교를 통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선교 네팔밀알학교

올해로 22년간 네팔밀알학교는 운영되어왔습니다. 15명의 직원과 70여 명의 발달장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대나무로 지은 교회에서 시작하였는데 그때 장애인은 카스트제도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취급되고 소외되어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밀알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투만두 시내에 사는 학생들은 통학 버스를 운행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지방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팔밀알학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오랜 특수교육 경험을 가진 선교사가 함께 하기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와 지원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불평등상



크리스마스행사



제일교회 130주년기념 심탈리교회 - 헌당식때 교우들과 선교팀



심탈리교회 주일학교



올해 4월 19일 부흥회 및 말씀세미나



22년 전 밀알학교가 시작된 대나무교회



밀알학교전경



밀알학교직원

사역박람회 스케치

의료선교부, 홍보출판부
240512 대구제일교회



사역발람회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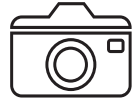
사역박람회 스케치

의료선교부, 홍보출판부
240512 대구제일교회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4.07. 제직회 및 박창운 목사님 사임 발표



 2024.04.07. 헌혈차가 달려갑니다



 2024.04.13. 클린데이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4.21. 이성희 목사 주일설교



2024.04.21. 오후예배 성찬식



2024.04.21. 김태영 목사 주일설교





🔊 2024.04.28. 김예원(부:김영광, 모:김새봄) 첫예배



🔊 2024.04.28. 권위로(부:권동우, 모:신유미) 첫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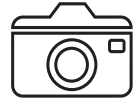
🔊 2024.04.28. 강리원(부:강규현, 모:이혜원) 첫예배



🔊 2024.05.05. 이채이(부:이효찬, 모:박효정) 첫예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4.05.05. 이승태 목사 어린이주일 설교



🔊 2024.05.05. 어린이주일 행사





🔊 2024.06.09. 송로아(부:송주환, 모:김미진) 첫예배



🔊 2024.06.16.
이다민(부:이재원, 모:김채원) 첫예배



🔊 2024.05.05.
아동세례 최슬기 학생



🔊 2024.05.05. 유아세례





🔊 2024.05.12. 광희주목사 어버이주일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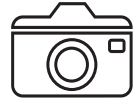
🔊 2024.05.16. 무지개학교 야외예배



🔊 2024.05.19. 박원호 목사 주일설교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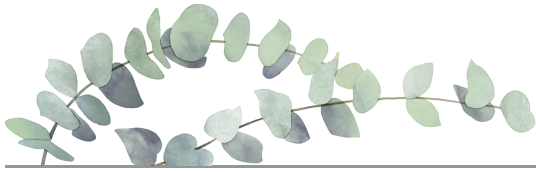


🔊 2024.05.19. 안세주 목사 교회학교 헌신예배 설교



🔊 2024.05.19. 교회학교 헌신예배





🔊 2024.05.26. 김은호 목사 주일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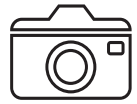


🔊 2024.06.02. 허성균 목사 주일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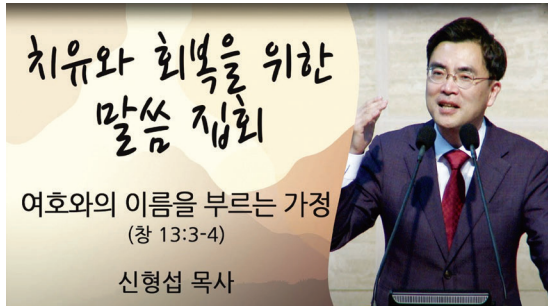


🔊 2024.06.09. 청년3부 기획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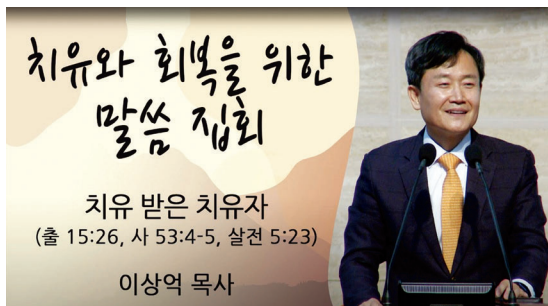




🔊 2024.04.24. 1차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집회 신형섭 목사



🔊 2024.06.02. 2차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집회 이상억 목사



🔊 2024.06.09. 3차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집회 박영호 목사





🔊 2024.04.20. 교육부 주관 풋살대회



🔊 2024.06.01. 경북노회 중고등부연합회 풋살대회





부제: 교역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기자단 이 수 경 집사

.....
대구제일교회 가족들이 궁금해 하던 바로 “고갯”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기자단이 취재하고 탐방하고 대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고갯”에 대해선 제한 없이, 얼마든지 문의해 주세요. 사례 깊게, 재밌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섬겨주고 계시는지? 교역자실이 어디에 있는지? 평소에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설교 외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와 함께 푹! 푹! 문을 노크해 볼까요? 자~함께 가볼까요~~~

아차차 처음부터 예상을 깨주시는군요.

때는 산뜻한 봄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의 시작하는 어느 날 행정실에 위치를 물어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교역자실은 100주년 기념관 6층에 있었고 노크가 필요 없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아! 나도 와도 되는 곳이구나!! 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학교 다닐 때 교무실처럼 선생님이 부르면 가는 곳 (칭찬보다 야단 맞으러 가는 곳 아니면 심부름 시키실 때 부르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오는 곳이라는 기자의 근거 없는 허접한 선입견이 가볍게 짹~사라졌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크고 멋진 테이블이 중앙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 가구 중에 젤 멋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오~ 회의하시는 모습도 멋진데요~





목사님들께서는 주일설교 외에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할 일은(하루 일정)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 주간 스케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짝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일요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 날 월요일은 휴일입니다(새벽예배 맡으신 분 제외). 아직 아이들이 어린 목사님들께는 금쪽이들과 함께하는 금쪽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화하기 있지요? 없지요?

화요일부터는 5시 30분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각각 맡으신 책임에 따라 퇴근하는 5시 30분까지 각 부서별(순모임, 구역장 모임.) 교육과 양육, 신방, 경조사 등등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작년 한 해 장례 예배가 60건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수고하심에 잠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우선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말씀 준비일 텐데 언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만치 않겠구나. 에너지 넘치시는 모습 뒤에 진진하게 말씀 준비와 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등이라도 잠시 붙일 수 있는 편한 의자? 요즘 집집마다 다 있는 안마기? 그런 거 하나 있음 참 좋겠다는 기가 생각 이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며 교역자실에 잠시 머물러 보니 업무공간과 탕비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아주 산만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애쓰시고 수고 하시고 분주하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업무공간을 재충전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명의 성도의 바람이 그분께 가 닿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불렙동상

중세 교회의 뒷골목 풍경

“과거를 보고 현재를 살핀다!”



- ▶ 도서명 : 중세 교회의 뒷골목 풍경
- ▶ 저 자 : 박양규 목사
- ▶ 출판사 : 예책
- ▶ 출간일 : 2019년 5월 20일

| 저자소개 |

박양규牧사는 '죽은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현재와 대화를 나누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 총신대 신학과B.A와 동 대학원M.Div.에서 공부를 마쳤고, 고려대 서양사학과에서 헬레니즘을 전공했다M.A. 영국 애버딘 대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4~2015년에는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인문 고전과 성경을 집목한 교리 교육에 전념했으며,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시무)에서는 교회학교를 총괄했다.

유럽의 '중세'하면 우리와는 먼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기 313년, 태양신을 숭배하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발표한 이후, '을'이었던 기독교는 '갑'의 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들을 박해하는 기독교의 종교가 되었고, 중세의 유럽 제국들의 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교회의 절대권력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였으며, 15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을'인 거리의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사랑으로 감싸 안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개혁된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제 중세와의 교감을 통해 변화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갑'이 아닌 '을'이었던 중세인들과 공감하고 대화하는 중세 교회의 뒷골목 이야기. 중세 교회사의 뒷이야기에 숨겨진 중세인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울 수 있는 통찰을 엿보는 책. 단지 역사로서의 중세가 아니라 '을'이었던 중세인들과 공감하고 대화하면서 그 시대의 감정, 인격, 눈물을 현재와 나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한국 교회를 성찰하게 해 주는 책. 중세인들의 애환이 담긴 유럽의 뒷골목들을 발로 누비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과 거인들의 문학 속에서 찾아낸 영감은 한국 교회의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게 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 중세 뒷골목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다

‘암흑’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배웠던 중세. 이 책은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를 서구 중심 역사의 기록이 아닌, 중세 교회의 뒷골목에서 민중들을 통해 낯설게 보여주는 책이다. 특히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중세를 조망했던 많은 철학자, 문학과 지성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세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닮아 있는 중세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성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즉 비기독교인을 대하는 무례한 자세와 다른 것을 쉽게 타자화함으로써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감정, 도덕, 인격을 통한 중세와의 대화에서 얻은 성찰을 통해 우리의 얼룩을 제거할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 교회사 뒤에 숨겨진 중세인들과 공감하고 대화하다

성직자가 아닌 여성이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이유로 마녀가 되어 화형을 당한 잔 다르크, 교황의 권력에 저항했던 수도사들, 십자군의 칼날 앞에 쓰러져 간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등 이 책은 중세의 약자들을 통해 중세 이야기를 풀어낸다. 연대와 역사 정보로 살펴보는

중세가 아니라 현재와의 연속성을 고민했던 ‘거인’들의 시선으로 그 시대의 감정과 인격 그리고 눈물을 나누고 있다. 또한 오늘날과 닮아 있는 중세 사회, 한국 교회와 관통하는 중세 교회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민중들의 생각과 소통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으로 죽어간, 숫자로만 표시되는 중세인들의 삶과 현실 속에서 우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찾고, 연암과 초서, 농민 화가 브뤼헬과 로빈 후드 이야기 등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찾고 벗어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 유럽의 중세 뒷골목을 더듬으며 쓴 ‘을’들의 역사

중세 교회의 뒷이야기를 다룬 책이지만, 다양한 중세 교회와 뒷골목 사진들은 기행을 연상케 한다. 저자는 중세의 자취가 남아 있는 유럽의 중세 교회들과 뒷골목들을 발로 누비며 ‘을’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약자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았던 루앙 대성당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캔터베리 대성당, 권력의 착취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로빈 후드와 의적들이 숨어든 셔우드 숲, 십자군을 피해 알비파가 최후까지 신앙을 지켰던 케피비스 성, 마녀사냥이 자행되던 로텐부르크의 종교 재판소,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허용한 루터가 자주 설교했던 성 마리엔 교회의 유덴자우 조각 등 그저 유럽의 관광지로 여겼을 그곳

에서 저자는 철저하게 '을'이었던 중세인들의 눈물과 인격을 만나게 해 준다. 역사 큐레이터 이상으로 저자가 발로 취재한 사진과 뒷골목 이야기들은 중세와 맞닿은 현실에 선명한 적용 점을 제시한다.

[책 속으로]

◆ 유럽 곳곳의 교회에서는 성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배하러 오라고 순례자들을 부른다. 성물을 참배하면 연옥에서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이다. ...(중략) 로마에서는 베드로를 결박했던 쇠사슬, 최후의 만찬 테이블, 예수님을 찔렀던 창, 세례 요한의 치아를 보관하고 있다. ...(중략) 교회들이 앞다투어 성물을 선전하면서 순례자들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성물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발명'한 것일까? 32쪽

◆ 역사는 말한다. 「밀라노칙령」 이전의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보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이교도를 박해했던 것이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했다고 321년에 황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선언했고, 356년엔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중략)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비기독교에게 극심한 차별이 생겨났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53~55쪽

◆교구 사제, 면죄부 판매사, 소환리, 탁발 수

도승 등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이지만, 모두 성직자 신분이다. 이들에게 설교란 대중과 자신을 구분 짓는 수단이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좋은 도구이다. ...(중략) 성직자들은 「제프리 초서」에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털어놓는다. ...(중략) 꿀팁의 전략은 민중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는 것이며, 전술은 그들과 자신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전술에 사용되는 것은 라틴어와 헬라어다. 설교할 때 이런 단어를 쓰면 자신들도 못 알아먹지만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쳐다보게 된다. ...(중략) 두 번째 꿀팁은 음성변조다. 설교를 할 때에는 평상시에 쓰는 톤을 사용하면 안 된다. 76~77쪽

◆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 위협적이거나 거슬리는 여성들이 종교 재판소로 소환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다. 신비적 체험을 했다는 이유가 많기는 했지만, 고발과 의혹만으로도 마녀를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교회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신비 체험을 하더라도 판단하는 당사자에 따라 성녀가 되기도 하고 마녀가 되기도 했다. 마치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이단이나 아니냐로 판가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105쪽 끝 | 출판동상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

현재 교회 리더그룹의 지지가 있어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10년 후,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그 변화는 과거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직업 경제 교육 문화 가치관은 물론 종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종교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종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은 종교적 의식과 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전통과 함께 형성된 가치관과 제도는 이미 신앙과 함께 확립되어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종교의 실례는 한국 종교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면, 1950년대 불교가 그랬다. 당시 선교사들은 사택을 짓기 위해 오래된 목재가 필요했는데, 신도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진 절을 허물 때 나온 목재를 사들여 사용했다. 선교사 사택에 불교 사찰의 목재가 재활용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불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실례로 여겼다. 19세기 말 초기 선교사들이 전염병과 무더위를 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절에 머물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시도는 쉽지 않다. 선부른 시도가 반대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대는 주로 전통에 익숙한 핵심 리더 그룹에서 시작된다.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구약의 예언자 시대에도 그랬고, 유대교의 개혁을 외쳤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으며, 중세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와 칼뱅의 시대에도 그랬다. 변화는 것과 불변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모건 하우절은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로 추진하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것이 쌓여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강한 것은 없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행동양식,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다. 이것들은 욕망이나 두려움과 같은 인간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이기도 하다.

교회에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원칙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다', '성경의 문자적 내용은 불변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변한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지속할 수 있다' 등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과 신앙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 저항하여 세워진 '개혁의 교회'이기에 변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교회의 변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회 리더그룹의 지지가 있어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현재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그룹의 희생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교회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역동성을 의미한다. 역동성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작은 변화라도 시도되어야 하고 격려 받아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변질된 사순절

사순절하면 사순(四旬) 40일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한 기간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오로지 기도 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를 보면 꼭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이나 초기 목사님들이 은사 받아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하여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등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사순절이라고 해도 금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변질 되었을까?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문제다. 40여 년 전에 광나루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학교의 학훈은 경건과 학문이었다. 그러나 신학생들 가운데 난잡하고 모난 학생들을 종종 보고 실망이 컸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이말 저말이 들려오기도 한다. 신학교 다니면서 천호동 죽발집을 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 하여 밤이면 삼삼오오 짝지어 나가는가 하면 위 커힐 호텔에서 밥을 먹을 때는 전도사나 신학생이란 신분은 숨기고 회사에서 부르는 호칭을 따서 과장님, 전무님, 이대리,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어른된 나이이고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교단 내 대선을 꿈꾸다가도 그런 잡음이 나오면 두말없이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필자는 신학을 때려치고 집으로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당시 신학생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잡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만큼 영성이 떨어져 간다는 뜻이다. 지금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외칠 때는 서로 사랑하라, 앞자리가 복자리다 하면서 자기들이 더 당을 지어 시기 질투하며 본인이 설교 안하면 맨 뒷자리에 앉아 앞자리는 텅 텅 비어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좋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목사를 하나님 다 음으로 잘 섬긴다. 물론 고약한 장로님이나 집사들은 목회자를 자기 종으로 취급하여 설교도 제한하고 밖에 출입하는 것도 막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면 교회 출입구에 자기 집 트랙터를 갖다 세워 교회 봉고차가 밖에 못나가게 했다는 씁쓸한 말도 들었다.

제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 초창기 목회자들은 순교하면서도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교회를 지켰다. 온갖 멸시 천대도 달게 받고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했다. 그런데 최근에 닥친 코로나는 게으른 목회자들을 합리화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았다. 심방을 안 가도 되고, 주일 낮 예배 외 다른 예배들은 아예 없애버린 교회들도 많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훗날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필자가 목회학을 배울 때 붙잡는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싫어하는 교회에서 버티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를 축대밭을 만들고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위임식까지 해드려 평생 같이 한다고 좋아하는 교인들을 실망시키고 더 큰 교회가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이렇다 보니 후임목사는 결국 위임식을 안해주는 교회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가 청빈을 신조 삼은 것처럼 주면 받고, 안주면 마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순절 기간동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기도 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며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을 통해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기도해본다.

나의 어머니 최성해 권사님



서인수 장로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이셨다.

젊을 때는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셨고 나이가 들어서 교회 출석이 힘들어지자, 집에서 매일 새벽에 요일별로 따로 정하신 찬송대여섯 곡을 부르신 후, 수십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하셨다. 그 내용을 담은 글을 “물댄동산”에 두 차례 올리기도 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봉사의 길을 걸으셨다.

젊을 때부터 집사로, 또 권사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였고, 장년이 되기까지 권찰로 또 중등부 교사로도 수십 년을 봉사하셨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 문상을 와서 “우리 선생님이셨어요”라고 회고하는 제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다. 어머니께서도 평소에 제자들의 안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탓이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학생들의 졸업 후에도 제자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훌륭한 선생님이셨구나.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여전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셨다. 나이에 따른 구분에 따라 한 층계씩 올라갈 때마다 차례로 평회원, 실행 위원, 임원, 회장을 맡으셨다. 임원으로는 회계를 자주 맡으셨는데,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 1원이 틀려도 밤늦게까지 전체를 다시 검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철저한 분이셨다. 경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도 참가하시어 회장까지 맡아 봉사하셨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직은 십여 년 후에 며느리인 이경화 권사도 맡게 되어 기독 공보에 ‘시어머니를 이은 며느리 회장님’이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셨다.

나는 몰랐는데 평소 주보에 실린 교인 소식을 보고 축하와 위로의 전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 문상 오신 몇몇 분이 참 감사했다고, 또 위로가 되었다고 전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정작 아들인 내게는 칭찬이 좀 박해서 다소 불만이 없진 않았는데 나의 어머니가 그런 면이 있었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후에 지금은 퇴임하신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선교하다가 귀국하여 형편이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나의 어머니께서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봉투를 하나 주셔서 열어보니 거금 20만 원이 들어있어 너무나 감사했다는 전언도 들었다. 어머니에게 20만 원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막상 선교사로 나간 아들 며느리에게는 1만 원도 주시지 않았는데, 아들은 능력 있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라는 믿음이 있으셨겠지.

“최성해 님, 2024년 5월 3일 오후 3시 33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여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언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머니, 이렇게 가십니까? 이제 일어나 앉고 싶고, 걷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도 싶고 이 세상에서 소망하던 모든 것 뒤로 두고 고통 없고 평안한 하늘나라가 그리워서 그렇게 떠나십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를 만나려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버지와 합장해 드리지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님 겁쟁이셔서 무덤에 혼자 못 계세요. 아버님을 옆에 모셔야지요.” 그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겁이 안 나시지요?

나의 어머니 최성해 권사는 1923년 4월 20일 최경학 목사님과 이수만 권사님의 4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셨다. 위로는 언니 최성호 권사, 밑으로는 최성찬 목사와 최성우 장로가 있다. 외할아버지는 계성학교 교사로 계실 때 31운동에 학생 동원 주동자로 3년의 옥고를 치르신 독립유공자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누워계신다. 감옥에서 나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대구 최초의 미국 유학이라고 알고 있다. 바다를 건너 미국에 가실 때 나의 어머니가 태어나셔서 어머니의 이름에 바다 海자가 붙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는 제일교회 구당 종탑을 세우신 이주열 권사이시고, 외외할머니는 희도학교를 세우는데 한몫을 하신 박순도 할머니이시다.

어머니는 신명고녀를 졸업하시던 해인 1941년 12월에 서병길 장로와 배순남 권사의 장남 서재우, 나의 아버지와 결혼하셨다. 아버지는 위로 5명의 누나, 아래로 2명의 남동생과 4명의 여동생을 둔 12남매의 장남이셨다. 나의 할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시어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강하셨습니다.

12남매의 맏며느리로서 곳곳하게 견디셨다. 시조카인 정영수 집사는 외숙모가 대단하신 분이시고 매우 존경한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시누이들도 만 올케를 존중하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

나의 어머니는 고우셨습니다.

입관 예식을 할 때 본 어머니는 102세 노인인데도 피부도 곱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얼마나 평온한 얼굴인지. 천당에 가신 게 분명하다고 모두들 말한다.

아버지도 예쁜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셨다. 돌아가시던 해에 12월이면 금혼식을 한다고 그렇게 고대를 하셨는데 몇 달을 앞두고 그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특별히 서운해하셨다.

이제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직도 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나 좀 쉬어야겠다.” 하실 것 같다. 어머니 언젠가는 정리해야겠지요.

장신대 교수의 “관점”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주일에배 후에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하기에 내가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관점을 바꾸어 기뻐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머니. 무언가 허전하고 자꾸 보고 싶습니다. | 불령동상



찬송가 가사의 발음하기



우정복 원로장로

1. 찬송은 곧 그 자체가 예배이다.

- ▶ 찬송가는 가사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찬송가나 다른 노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음악 자체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나 가사에는 관심이 부족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가사 전달이 잘 되지 못하여 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 ▶ 특히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祭祀)”(히13:15, 호14:2) 이므로 찬송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송은 곧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무엇을 부르는지, 무엇을 듣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예배”가 될 것인가?
- ▶ 따라서 가사가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하여 아래의 “<찬송가> 가사 발음하기 유의 사항”들에 따라 작곡되고 또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을 진실 되고 참된 믿음의 마음에 담아 “찬송의 예배”를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될 것이다.(¹⁾사43:21, ²⁾대상29:20, ³⁾시86:12)
 註¹⁾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²⁾ 누구를 대상으로 찬송을 해야 하는지? : 내가(우리가) 주 하나님께 찬송,
³⁾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해야 하는지? : 전심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함.
- ▶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합당한 찬송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형식적인 “찬송” 곧 형식적 “찬송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더욱 들려주기 위한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찬송가> 가사 발음하기의 유의 사항

- 1)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처음절에만 긴소리가 나는 것이 원칙이다.
 - ① 처음절에 긴소리를 가진 단어의 예
 * <눈:보라> * <많:다> * <말:씨> * <멀:리> * <반:신> * <반:의>
 * <밤:나무> * <별:리다> * <수:많은> * <제:사> * <제:삼> 등과
 - ② 처음절에 긴소리를 갖지 않는 단어의 예
 * <눈멀다> * <떠벌리다> * <쌍동밤> * <참말> * <첫눈> 등이 있다.

➡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단어의 첫음절이 소리의 강세(악센트)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단어의 뒤 음절은 짧고, 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짧게 발음하는 것들

- * <감다(감:따)>⇒<감으니, 감기다> * <꼬다(꼬:다)>⇒<꼬이다>
- * <밟다(밟:따/다)>⇒<밟으면, 밟히다> * <신다(신:따/다)>⇒<신어>
- * <알다(알:다)>⇒<알아> 등이 있다.

3)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악센트)

- * <가끔> * <거꾸로> * <기쁘다> * <깨끗하다> * <소쩍새>
- * <아끼다> * <어깨> * <어떠하다> * <어찌> * <오빠>
- * <으뜸> * <이따금> * <해쑹하다> 등과

②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

- * <담뱃> * <몽땅> * <산뜻하다> * <살짝> * <엉뚱하다> * <움짚>
- * <잔뜩> * <혈썩> 등과

③ 다만 “ㄱ, ㅂ” 받침 뒤에 나오는 것은 된소리를 하지 않는다.

- * <갑자기> * <국수> * <깎두기> * <딱지> * <몹시> * <법석>
- * <색시> * <썩둑> 등이 있다.

4) 발음할 때 유의해야 할 사례들

- * <나는(내가) 새를 보다>⇒<나는(날아가는) 새를(시78:27)>
- * <내가>⇒<네 가> * <내일(來日)>⇒<내 일(나의 일, 왕상2:2)>
- * <네 민족(너의, 겔37:18)>⇒<네: 민족(4개)>
- * <그물에(고기 잡는, 겔32:3)>⇒<그 물에(水, 겔32:13)> * <금(金)>⇒<금: (禁)>
- * <너희들은>⇒<너희 들은 것> * <눈(眼球)>⇒<눈: (雪)>
- * <말(馬)>⇒<말: (言)> * <매다(뭍다)>⇒<메:다(어깨에 걸치다)>
- * <부자(父子)>⇒<부:자(富者)> * <사과(沙果)>⇒<사:과(謝過)>
- * <빛(털 빛는), 빛(꾸어 쓴), 빛(태양 빛)>⇒<비슬(비시), 비줄(비지), 비출(비치)>
- * <사사(私事)>⇒<사:사(士師)> * <사자(獅子, 욥4:10)>⇒<사:자(使者, 수6:17)>
- * <사절(謝絶)>⇒<사:절(使節), 대상19:2,3>
- * <산자(물건 산 사람)>⇒<산 자(살아 있는 자)> * <상(床)>⇒<상: (賞)>
- * <선인(先人)>⇒<선:인(善人)> * <시장하다(배고픔, 눅6:3)>⇒<시:장(市場)>
- * <우리(동아리, 민32:16)>⇒<우리(짐승의 집)>
- * <이 방(房)에서>⇒<이:방(異邦)에서>
- * <이물(뱃머리, 행27:41)은>⇒<이 물(水)은. 이:물(異物)은>

- * <장사(물건사고 파는)>⇒<장:사(壯士,葬事)>
- * <재물(財物)>⇒<제:물(祭物),제:사(祭祀)>
- * <정(淨,신12:22)>⇒<정: (定,신19:15)> * <제비(뽑기)>⇒<제:비(철새)>
- * <종(치는 종)>⇒<종: (노비)> * <해(日)>⇒<해: (害)> 등이 있다.

5) 발음 할 때의 구강(口腔, 입안 모양)의 한 “예시”

① “긴소리”를 낼 때(<“네:가”>, <“제: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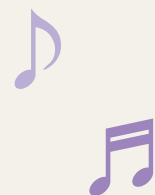
이는 “혀끝이 앞 이의 안쪽 아랫부분에 닿아 있다가 목구멍 쪽으로 가볍게 당기어 들어가며 소리를 약간 길게 내는” 구강의 모형이며

② “긴소리”가 아닐 때(<“내가”>, <“재물”> 등)

이는 “혀끝이 앞 이의 안쪽 아랫부분에 가볍게 닿게 하여 소리를 짧게 내는” 구강의 모형이다.

3. <찬송가> 가사 전달에 대한 제언

- 알파벳 문자의 단어에는 모음의 악센트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지만, 우리 말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어의 첫음절은 소리의 강세(악센트)로 이루어지고 그 단어의 뒤 음절은 짧고 약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를 무시하고 첫음절은 약하게 하고 오히려 중간음절 또는 끝음절에는 악센트나 긴소리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 그리고 외국 노래 가사를 선율(旋律,melody)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번역함과 같이, 우리말 가사의 강약이나 장단을 생각하지 않고 작곡하거나,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므로 써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
- 그러므로 먼저 작곡할 때 “서양식 선율(旋律)”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에서 제시한 유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우리말 가사의 강약이나 장단에 맞게 **작곡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노래 부르면** 가사 전달이 잘 될 것이다.
- 또한 한자어 단어로 된 가사보다는 순수 우리말로 된 노랫말이 부드러운 정감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투리보다는 표준말을, 바르고 고운 말로 작사하면 가사의 뜻 전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불렙동상**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우/상/숭/배



권중웅 명예집사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우상 숭배 현상이 나타나 보인다는 글의 제목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크리스천에게도 영감(靈感, inspiration)을 주시어, 이 글을 쓰게 하시는 것 같다. 영감의 사전적 의미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득이는 착상이나 자극을 말하거나, 신(神)의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을 말한다. 시인(詩人)들도 영감이 떠오를 때 시(詩)를 쓴다고 한다. 시인은 종교적인 영감이 아닌 시작(詩作)에만 떠오르는 국한된 영감이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간헐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던 현상이었다. 우상(偶像, idol)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神)처럼 떠받드는 대상이다.

필자는 오늘날 일부 크리스천들에게서 보이는 우상 숭배 현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적 이념(理念)의 중도론(中道論)은 효용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흑(黑)과 백(白)의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정쩡하거나 회색적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태

6:24).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는 것 두 갈래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다(계3:16). 크리스천에게는 외길의 좁은 문(門)만 있을 뿐이다(마태 7:13-14). 좌고우면(左顧右盼)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混合主義)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異邦)의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징벌을 받았다.

일부 크리스천들의 우상 숭배 현상으로는, 재물(財物)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재물을 우상처럼 받드는 현상이 나타나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혼합주의를 닮은 듯하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재물을 우상처럼 받드는 것 같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시 뒤로하고,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현상은 분명히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교회 일에는 열심이면서, 재물을 부정하게 획득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 보인다. 견리사의의(見利思義)라는 격언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義理)를 생각하라

는 뜻이다. 세상의 교훈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은 의리를 철저히 지켜야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義)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6:33).

다음은, 일부 크리스천들이 불의(不義)한 권력에 동조하거나 방치하는 현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불의한 권력을 독재 정권으로 변모(變貌)시켜 우상화(偶像化)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록하도록 만든 419혁명이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할 강압적 상황에서도, 이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랐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일부 목사들은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였고, 한국 전쟁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당했다. 크리스천은 불의하고 불공정(不公正)한 권력에는 저항(resistance)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유대 헤롯왕의 불의에 저항한, 세례 요한을 본받아 선교의 길을 굳게 해야 한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가톨릭 성직자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가톨릭에 귀의한 시민들이 크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 교회는 우선(于先) 복음 선포가 시대적 사명으로써 급선무(急先務)이

었기 때문에, 복음 선포에 장애 되는 정치적 문제에는 무관심하였고 오직 복음에만 치중(置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 자유가 주어진, 민주 사회의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바람직하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政治 參與)는 이웃인 서민(庶民)을 보살피는 일이다. 불의(不義)한 권력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면, 독재 정권으로 변모하여 우상화(偶像化)될 수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義)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는 사람의 영혼마저 오염시킨다. 크리스천은 독일 나치(Nazi) 치하의 본회퍼(Bonhoeffer) 목사의 저항적인 신학(神學)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본받아야 한다.

크리스천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일은 이쁜만은 아니다. 성적 생활(性的生活)에 매몰(埋沒)되는 현상도 우상 숭배와 맞먹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랑의 행위는 당연하지만, 선(線)을 넘어 매몰되는 경우는 우상 숭배가 된다. 섹스(sex)에 빠지게 되면, 다른 주요 가치(價値)들을 파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섹스가 우상처럼 되어간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主犯)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범죄에 이르게 하여, 온갖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섹스라는 우상이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소외(疏外)시키거나 비인간화(非人間化)시키는 현상은 모두 우상 숭배에 속한다.

정치 이념(理念, ideology)도 우상화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정치 이념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져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離間)시켜 분열로 치닫게 한다. 정치 이념은 원래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인 작용으로써, 나라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된다. 어느 한쪽 바퀴가 훼손되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요즘의 정치 이념은 서로가 배척하고 충돌을 거듭함으로써, 제 기능(機能)을 잃어간다. 일상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쟁(政爭)만 일삼고 있다. 이는 이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왜곡된 탓으로, 정권욕(政權慾)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정치를 실종(失蹤)하게 만든다. 결국, 정치 이념은 모든 가치(價値)를 통제하고 우상화되어, 복음마저 훼손하는 모양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제반(諸般) 우상화 현상들을 타파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앞장서 가속화(加速化)시키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固有)한 뜻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들 각자는 이제라도 다양한 우상 숭배의 현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신실(信實)하게 살아가야 마땅하다. | 불평등상

희생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변정자 권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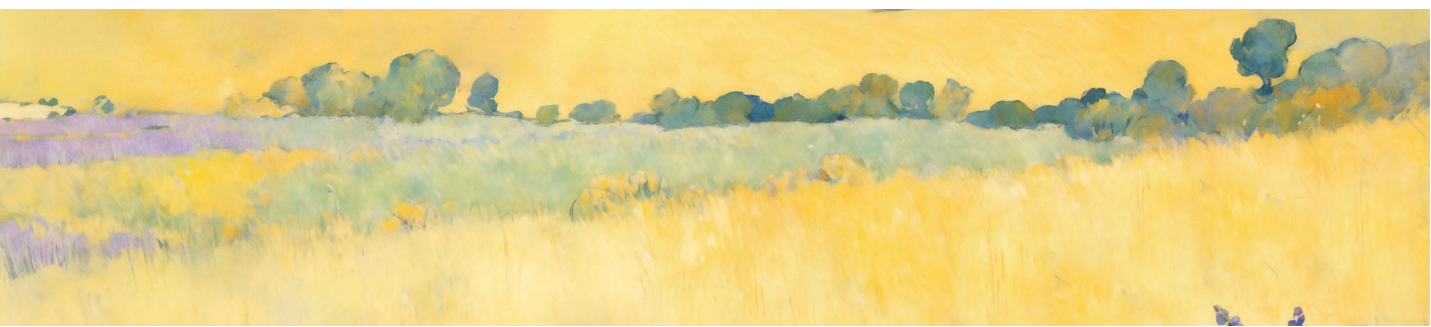
사랑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저 없이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영광보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정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귀중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허

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나는 주저 없이 희생하고 죄를 덮어주는 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급이나 군대의 계급장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희생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섬김을 받기 위하여 돈을 벌고 권세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



리 영달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건물이나 조직원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보다는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니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지나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나 협회가 처음에는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단체장이나 협회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도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할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형제를 향하여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그리스 어원에 따라 분류해 보면 에로스(Eros), 필리아(Philia), 아가페(Agape), 스토게(Storge)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토게 사랑은 바로 부모-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간혹 일부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을 외면하고 학대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감싸며 보살핍니다. 아가페 사랑은 보통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할 가치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고린도교회에 이 사랑이 결핍하여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

다. 바울은 신자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섬기는 것 중 하나, 특히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받아 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라 했습니다.

‘참는다’는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폭로시키지 않고 조용히 바로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 두고 그 잘못을 버리도록 기도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자신이 짊어지고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죄나 실수를 폭로하면서 들었다고 퍼트리고 다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의 아픔을 감싸주고 잘못이나 죄를 짓고 고민하는 형제를 위로하고 새출발하도록 권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행하실 일에 언제나 새로운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분류하기를 거부하고 각자가 받은 특별한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하고 진심으로 기대하는 믿음의 가족은 반드시 번성합니다.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가장 깊은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형제자매들, 그것이 곧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구 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사랑보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늘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 *울렐동상*



마틴 루터 신앙의 중심에 서다



최지은 성도
갈릴리 찬양대 바이올린

2016년 잠시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나는,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성경을 번역해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살았던 바르트부르크(Wartburg)성으로 향하였다.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싶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한 현장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비가 막 그친 날의 바르트부르크성 너머에는 무지개가 예쁘게 떠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신학자로서의 루터는 이 성에 은둔하며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독일 민요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 일반 회중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중 대표적인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인데, 바로 이 곡이 바르트부르크성에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지만, 이곳이 수백 년 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며 마귀와 싸우며 홀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곳이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개인으로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두 것이 힘들었다.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 덕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루터를 비롯한 이 시대의 학자들이 성경을 라틴어 이외의 다른 일상 언어들로 번역했기에 오늘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대구제일교회의 역사 속에 흐르는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 속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 영을 정화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대구제일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타성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끌어올리길 소망한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오래전 종교개혁 시대의 뜨거운 신앙을 이어 나가길 나 자신도 소망한다.

백령동상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483년 11월 10일 ~ 1546년 2월 18일)

퇴행성 관절염

사람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중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성장을 끝마친 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는 30대 초중반이 되면 아프지 않았던 몸이 하나둘씩 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통증에 대해 당황스러움이 앞섭니다. 통증을 무시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여 보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통증은 수일에서 수 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몸의 상처들이 쌓을 틈을 틔우는 때입니다. 자그마한 통증을 무시하면서 지나치고 제때 관리해 주지 않으면,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누적된 상처들이 내 몸과 마음을 갇아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상처들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퇴행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체중을 싣는 관절들, 특히 척추와 무릎에 흔하게 생기며 이를 퇴행성 골관절염 혹은 퇴행성 관절증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수명,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스포츠, 등산 등 여가 생활로 인한 무릎관절의 손상,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으로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에게서 더욱 흔하고, 4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인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양반다리 하기,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은 문진과 신체검사, 방사선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흔하게 엑스레이로 퇴행성 무릎관절염의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초기에서 중기인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생활 습관의 변화, 체중 감량, 소염진통제, 열전기 치료 등의 물리치료, 관절 가동 운동, 스트레칭 및 근력 강

화 운동, 연골주사 치료, 발 보조기 등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연골이 거의 남지 않는 4단계가 되면 심한 통증, 체형의 변형(오다리), 관절 범위의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 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머리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 꼴꼴하고 바른 척추 자세와 내전근, 대퇴사두근, 골반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무릎에 손상을 주지 않는 활동이 중요하고, 과체중을 예방하거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통증을 조절하면서 수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가족들 모두 무릎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 **출발동상**



- 퇴행성관절염 1단계 :
골극이 보이지 않고, 관절 간격이 정상입니다.



- 퇴행성관절염 2단계 :
약간의 골극이 관찰되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다.



- 퇴행성 무릎 관절염 3단계 :
관절에 골극이 관찰되고 관절 내측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최성민 전도사

사역_ 찬양사역, 청년부 지원

샬롬~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

5월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끈끈한 사랑과 스승과 제자 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혹시나 정신없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 옆에 계신 이들에게 표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상황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서는 "옆집 애들은 안 그런다던데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지?" 혹은 자녀들의 입장에서서는 "내 친구 부모님은 안 그런다던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지?" 당장에 벌어진 상황 앞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왜 그러나?' 싶다가도 시간이 잠시 지나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이와 동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끊임없이 축복하시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지혜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물댄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대한민국 CCM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은혜, 감사, 충만' 등 많은 히트곡을 만든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곡으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하심,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지혜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와 위로받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누구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 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찬양곡 바로듣기 ▶



담당하시는 성도님께..
교회 청빙문제로 기도하시면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건의: "남자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여자 전도사님께서 잘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청빙 되실때까지
저녁 10시 마다 온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1.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릴레이(24시간- 한분씩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한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제일교회 가운데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제일교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일교회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 많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금요기도회 기도순서 때
말씀→ 나라민족→ 세계선교→ 우리 교회
순이면 어떨까요.

본당 의자, 쿠션이 너무 낮아서
엉덩이가 아픕니다.
쿠션도 오래되어서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교회 의견도 낼 수 있으니까요.

교회 본당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쿠션이 너무나 납작해서 엉덩이가 아픕니다
전교인이 현금해서 본당 의자 바꾸었으면 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본당 로비와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열린소리함에 적극적인 의견 넣어주세요.



0512
사역박람회
5월가정의달
편지쓰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간	장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2층)
유아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3층)
유치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3층)
초등 1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6층)
초등 2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7층)
초등 3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4층)
중등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등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년 1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 2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 3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 (4층)
장년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 (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7 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접수 마감

2024년 8월 24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